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예술로 밥먹영 살아보게 마썸 (16)

홍기표 박사와 함께하는 한리일보 인문역사 강의

# 온라인 예술활동 지속 가능성 어떻게

문체부·제주도 지원 포함 10억 넘는 비대면 활동 공모 콘텐츠 생산량 증가에 맞춰 관객 만족도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과제

코로나19 시대, 제주에서도 비대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이 잇따른다. 2020년 제주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비대면 예술창작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주 등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사업을 벌인다. ▶6억여원 투입 120명 내외 지원 예정=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지원은 비대면 환경 속 새로운 예술 활동을 위해 전국 2700여 명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48억9000만

원 중에서 제주에는 국비 6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그간 공연예술 생중계에 머물던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 범위를 기초예술 전 분야로 확장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기존 현장 방문객에 더해 온라인상의 잠재 관객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적극적인 신규 관람객 개발을 끌어냄과 동시에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수익 창출 모델 발굴 등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9월 1일부터 관객개발형, 창작활동형, 플랫폼기반형으로 나눠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도내 지원 대상은 120명 내외를 계획하고 있다. ▶문예재단·영상진흥원 협력 체계 필요=비대면 예술창작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은 제주도가 코로나 위기 극복 제주문예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공연·전시물

이 대상으로 150건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제주문예재단은 도비 1500만원을 들여 비대면 온라인 발표 등 예술활동 컨설팅도 진행한다. 단기간 10억 넘는 사업비가 돌리고 비대면 예술활동 생산량이 증가하는 만큼 관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앞서 제주에서 진행된 온라인 공연에서 관객 반응이 노출되는 실시간 스트리밍 댓글창은 '그들만의 잔치'일 때가 적지 않았다. 온라인 콘텐츠 확산에 맞춰 가칭 '제주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문체부의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의 경우 12월 개통하는 '통합 플랫폼'에 등록할 예정인데, 이와 별개로 제주에서도 지역실정을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제주문예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이 요구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돌담처럼 변치 않는 가파도의 기억

조각가 김형석 첫 개인전 9월 1~12일 심현갤러리

가파도에서 시작된 유년의 기억을 돌 조각으로 풀어낸 전시가 있다. 9월 1~12일 제주시 아라동 심현갤러리에서 열리는 김형석 조각전이다. 김형석 작가는 가파도 태생으로 1991년 제주대 미술학과(조소전공)를 졸업했다. 창작에 전념하기로 마

음먹고 최근 미술학과 87학번 동기전, 제주조각가협회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해온 김 작가는 이번 첫 개인전에서 '돌담-기억의 조각'이란 이름 아래 일기 같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아낸다. '울타리', '돌담과 소', '기원', '늘 이터', '섬소년의 꿈', '골목길', '돌담 위 감나무', '동지' 등 흙줄작업들 저마다 사연이 있다. 작가는 현무암을 주제로 이 땅에 머물러온 돌과 바람



김형석의 '돌담과 소'. 처럼 변치 않고 기억속에 남아있는 그날들을 소환했다. 전선희기자

### 제주성악협회 랜선 공연

사단법인 제주도성악협회는 9월 1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는 2020 가을의 밤을 '제주도성악협회' 유튜브 채널로 중계한다.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이날 공연엔 소프라노 박선영 박예진 권효은 정유리 공현진, 테너 강창우 이승호, 바리톤 이영호 김훈석 김훈이 출연해 우리 가곡을 중심으로 명가곡을 들려준다. 피아노는 장은혜·신은비씨가 맡는다.

### 동녘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동녘도서관(관장 현관주)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기념 행사를 이어간다. 이 기간 면 마스크 만들기는 사전에 제작 도구(1인 2매)를 우편 발송하고 동영상상을 제공해 운영된다.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중학생 이상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마을 이야기 그림책 '당근이지'(글·그림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친구들) 원화전은 9월 8~27일 평생교육실에서 열린다.

### 제남도서관 초급 우쿨렐레

제남도서관(관장 황정식)은 우쿨렐레 초급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초급 우쿨렐레 교실은 한영숙 강사(우쿨렐레 1급 지도자)의 지도 아래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론과 실기 수업을 통해 우쿨렐레 연주자세와 다양한 코드를 익히게 된다. 성인 15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신청 연락처 766-4600.

## 성리학 울타리 갇힌 정부 아래 끝내 철폐

(4) 광양당(廣壤堂) 한라산신 아우 모신 사당 모흥혈과 동일 장소 아나 조선전기까지 제례 허용 무속행위 장소 점차 격하 18세기 초 '음사' 치부 없애



광양당(廣壤堂)은 한라산신의 아우를 모신 사당이다. 고려 예종 때 호종단이 제주에 내려와 이 땅의 기운을 눌러 돌아갈 때 한라산신의 아우가 매로 변하여 그의 배를 비양도에서 침몰시켰다. 이리하여 나라에서는 광양왕으로 봉하고 해마다 그를 모셔 제사지내게 한 곳이다. 속설에 따르면 광양당은 고려 중엽 때 설치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국가에서 봉작을 내리고 향과 폐백을 보내며 인정했던 사당이였다.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인근에 세워진 광양당터 빛돌. 커다란 벽면에 새겨진 '삼을나의 신을 받드는 곳'이란 문구는 모흥혈(삼성혈)과 광양당이 동일 장소가 아니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成桂)에서 단(巨)으로 고쳤기 때문에 태조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 달리 기록했다.

둘째,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사묘 광양당)에는 위의 사실 외에 "호종단의 벼슬이 기거사인에 이르러 죽었으니 제주에 와서 땅을 제어하다가 배가 침몰되었다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기록이 추가됐다. 그런데 '고려사'(권96, 열전10)에 의하면 호종단은 고려에 들어와 예종의 총애를 받고 보문각대제, 인종 때 기거사인에 이른 인물로, 글은 잘 지었으나 자주 압승술(壓勝術)로 예종을 미혹시켰다고 한다. 호종단은 음양술로 이미 당대에 왕을 좌우할 사를 지내고 배를 타고 강남으로 떠나려 할 때, 신(神)이 매로 변하여 날아서 뚫대기에 올라앉았다. 조금 있다가 북풍이 크게 불어 호종단의 배가 난파되어 서쪽 지경 비양도 바위 사이에 침몰하였다. 나라에서 그 신령함을 포상하여 식읍을 하사하고, 광양왕으로 봉하였는데, 해마다 나라에서 향과 폐백을 내려서 제사를 지낸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셋째, 광양당에 대해 이원조의 '탐라지초본'(권3, 제주목 기문)에는 고을나(高乙那) 신을 모시는 곳으로, 담수계의 '증보탐라지'(연혁, 부 기문전설)에는 삼을나(三乙那) 신을 받드는 곳으로 소개했다. 광양당이 모흥혈이며 탐라 개벽신화가 있던 곳으로 보고 있는데, 동일 장소였는지는 의문이 든다. 대부분 사료에서 모흥혈과 광양당은 다른 곳으로 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유 김상헌은 그의 '남사록'(1601. 11. 01)에서 모흥혈을 중심으로 주요 유적을 설명하면서 "사직단과 여단은 그(모흥혈) 남쪽에 있고, 광양신사(廣壤神祠)는 그 동쪽에 있고, 사라봉(沙羅峰)은 그 북쪽에 있으며, 금

강사(金剛寺)의 옛터는 그 서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에 따르면 광양당은 모흥혈의 동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세기 초 이형상(李衡祥) 목사가 각종 음사와 불우를 철폐할 때 광양당도 철폐하였는데, 이때 기록하는 오히려 '삼성묘상량문'을 짓고 있다. 따라서 광양당과 모흥혈은 다른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광양당은 고려 이후 조선전기까지 나라에서 그 제례를 허용하던 사묘였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유교 관료의 입장에서 이를 아름다운 토속의 공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유교의례에 입각한 모흥혈의 삼성사 전환을 이루고, 점차 인근의 광양당을 무속행위 장소로 격하시키는 인식이 커졌다. 결국 1702년(숙종 28) 6월 제주목사로 도임한 이형상은 이듬해 6월까지 1년간 재임하면서 제주 삼읍의 음사와 사찰 130여소를 불태우고 무당 400여 명을 모두 귀농시켰다. 제주의 풍속 일체를 유교적으로 시행하고자 그전까지 시행되어 오던 각종 무속과 사찰까지 철폐하였던 것이다. 일체의 이단을 용납할 수 없었던 조선 중앙정부가 성리학의 울타리 속에 갇혀서 제주 민간에서 전승되어 오던 민속을 한 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장면이었다.

\*강의 영상은 한리일보 유튜브 채널(촬영·편집 박세인 기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

###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집직종**

-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